



한국 상황에서 '유신진화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작성자: 이윤석 박사

발행일: 2026년 6월 2일

발행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이 리포트는 한국 교회 목회자와 진지한 기독교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포트 작성에는 고유 방법론 S.I.E.W Framework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리포트의 저작권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이슈 한 줄 정의

- 유신진화론 논쟁은 단순한 과학 논쟁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창세기 1~3장의 역사성, 아담의 실존, 원죄 교리, 죽음의 의미, 그리고 복음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신학적 논쟁임

□ 현재 상황 요약

- 최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유신진화론 이단 결의’ 후, 이 문제는 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유신진화론 진영은 현대 과학과 기독교 신앙이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하며, 하나님이 진화라는 자연 과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함. 반면 반대 진영은 창세기 해석, 원죄 교리 등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문제라고 판단함
- 동시에 한국교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커지고 있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등의 질문이 제기됨

□ 핵심 문제

1. 유신진화론은 성경보다 현대 과학 이론을 창세기 해석의 상위 기준으로 삼음
2. 역사적 아담과 하와의 실존, 역사적 타락, 원죄 교리를 약화할 위험이 있음
3. 죽음을 죄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과정의 일부처럼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음
4. 창조는 비역사적으로 해석,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수용하는 비일관성
5. 다양한 창조 모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중간 지대가 없다고 오해 가능
6. 다음 세대 창조 교육이 부족하면, 청소년과 청년들은 교회보다 인터넷, 유튜브, 대중 과학 콘텐츠에서 먼저 (성경의 의도와 다를 수 있는) 답을 찾게 됨

□ 결론

- 정통 기독교 교회가 유신진화론을 경계하는 이유는 과학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성경의 핵심 구조를 지키기 위함
- 성결교단의 유신진화론 이단 결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교단 차원의 신학적 경계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동시에 정통 기독교의 전통은 젊은지구론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강요하지 않음. 중요한 기준은 ‘정확한 연대’가 아니라 ‘복음의 구조 보존’임

☎ 문의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사무국

- 전화: 010-4682-0191 / 카카오톡 ID: siewsiew / 페이스북 그룹: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이메일: siewsince2021@naver.com / 후원: 농협 355-0077-2712-43 예금주: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S - Scan |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 핵심 질문:

“왜 지금 한국교회에서 유신진화론 논쟁이 커지고 있으며, 이 논쟁의 실제 지형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1] 유신진화론 논쟁이 교회 전체의 이슈가 되고 있음

- 유신진화론 논쟁은 과거에는 주로 신학교 교수, 조직신학자, 구약학자, 과학철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루어짐. 일반 성도들은 이 문제를 잘 알지 못했고, 교회학교에서도 창조와 진화 문제는 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수준에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최근 상황은 달라졌음. 유튜브와 SNS를 통해 신학 콘텐츠가 대중화되었고, 청년들은 해외 복음주의권의 논쟁까지 쉽게 접함. 여기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유신진화론 이단 결의가 더해지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학계 내부의 논쟁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주제가 되었음
- 일반 성도와 청년들도 유튜브, 블로그, 강연, 서적을 통해 유신진화론 논쟁을 접하고 있음. 교회 현장에서는 “무엇을 이단으로 볼 것인가”뿐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음
- 유신진화론 논쟁은 이제 신학교 안에 머무는 논쟁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경관과 다음 세대 교육을 시험하는 현실적 이슈로 부상함

[2] 청년 세대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음

- 오늘날 청소년과 청년들은 과거 교회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과학의 기본 설명으로 배우고, 인터넷에서는 무신론적 자연주의 콘텐츠와 유신진화론 콘텐츠를 동시에 접함. 반면 교회에서는 여전히 창조교육이 유치부나 초등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함. “아담과 하와는 실제 인물인가?”,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인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과 성경은 서로 충돌하는가?”, “창세기를 꼭 역사로 읽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라기보다, 신앙과 학문을 동시에 붙들고자 하는 세대가 겪는 실제 고민임

- 유신진화론 논쟁의 배경에는 다음 세대의 세계관 변화와 교회의 교육 공백이 함께 존재함 (학교와 대학은 진화론을 표준 과학 교육으로 가르침. 인터넷과 유튜브는 청년들에게 교회보다 더 빠르게 다양한 세계관을 제공함. 교회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교회 밖에서 답을 찾게 됨)

[3] 유신진화론은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는가?

-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이 ‘진화’ 과정을 사용하여 생명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입장. 영어로는 ‘Theistic Evolution’ 또는 ‘Evolutionary Creation’. 이는 무신론적 진화론과는 다름. 유신진화론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존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함
-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게 됨.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임. 그러나 정통 기독교 교회가 문제 삼는 지점은 단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창조, 인간, 죄, 죽음, 구속을 이해하는가에 있음
- 유신진화론은 무신론적 진화론과 같지는 않지만, 창세기와 아담과 타락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정통 기독교 신앙과 큰 차이가 있음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만, 인간의 기원을 진화 과정 안에서 설명함. 창세기 1~3장을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 상징적·문학적·신학적 서술로 보는 경우가 많음. 역사적 아담, 원죄, 죽음의 기원,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 교리를 재해석할 가능성이 큼)

[4] 한국교회 안에는 여러 창조 모델이 존재함

- 많은 성도들은 창조 논쟁을 단순히 “창조론 대 진화론”으로 이해함.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입장이 존재함. 특히 미국 OPC와 PCA 교단은 창조주간 6일의 해석과 지구 연대 문제에 대해 여러 견해를 검토하면서도, 유신진화론과는 구분되는 정통 기독교의 경계선을 세우고 있음
-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임. ‘한국창조과학회’는 젊은지구론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고, ‘창조론오픈포럼’은 오래된지구론 또는 더 넓은 창조론 논의를 다루어 왔음. ‘지적설계연구회’는 생명과 우주의 질서 안에 지적 설계의 흔적이 있다는 논의를 전개해 왔음. ‘과학과 신학의 대화’는 신학과 과학의 대화를 표방하며 유신진화론에 우호적인 흐름을 형성해 왔음

- 창조 모델은 하나가 아님. 그러나 정통 기독교 교회가 허용 가능한 다양성과 허용하기 어려운 유신진화론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구조임(① 젊은지구론은 창세기 6일을 문자적 하루로 보고, 지구 연대를 수천 년 수준으로 이해. ②오래된지구론은 첫 생물과 인간이 창조되었고 생물과 인간의 진화는 없으나 우주와 지구의 연대는 오래되었다고 이해. ③유신진화론은 우주와 지구의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하나님이 진화 과정을 사용해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봄. 역사적 아담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정통 기독교는 이를 문제로 여김)

[5] 한국교회의 교단별 지형도도 단순하지 않음

- 한국교회 내부에서도 창조론과 유신진화론에 대한 태도는 교단마다 다름. 예장 합동, 고신, 합신 계열 그리고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은 대체로 성경 무오성, 창세기 역사성, 역사적 아담, 원죄 교리를 강하게 강조하며 유신진화론에 비판적
- 반면 예장통합, 감리교, 기장 등은 내부 스펙트럼이 훨씬 넓음. 일반 목회자와 평신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전통적 창조 이해를 가진 이들이 많지만, 일부 신학교 교수와 신학자들은 창세기 1~3장의 역사성, 아담의 실존, 진화론 수용 문제에 대해 더 개방적임. 이는 단순한 과학관 차이가 아니라 성경관 차이로 이어짐
- 기성 총회의 최근 결의는 성결교단 내부의 논쟁이 교단적 판단으로 표면화된 사례로 한국의 주요 교단이 유신진화론 자체를 이단으로 규정한 첫 사례임

[핵심 정리]

- 현재 한국교회의 유신진화론 논쟁은 단순한 과학 논쟁이 아니라, 교단별 성경관 차이, 신학교육의 방향, 다음 세대 창조 교육의 공백이 함께 드러난 문제임. 특히 한국교회 안에는 젊은지구론, 오래된지구론, 날-시대 이론, 유비적 날 해석, 틀 이론, 지적설계, 유신진화론 등 다양한 창조 이해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창조론 대 진화론”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입장의 신학적 경계와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I — Interpret |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보는가

✓ 핵심 질문:

“기독교 세계관은 유신진화론과 다양한 창조 모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1] 창조는 복음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출발점임

- 많은 성도들은 창조론을 복음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함.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창조 방식은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함. 그러나 성경은 창조를 복음과 분리하지 않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남
- 창조가 있어야 타락이 설명됨. 타락이 있어야 구속이 필요함. 구속이 있어야 새 창조의 의미를 가짐. 그러므로 창조는 단지 재미있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의 첫 장이 아니라, 복음 전체의 토대임
- 그러므로 창조 교리는 복음과 별개의 주변 교리가 아니라,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성경 전체 이야기의 출발점임

[2] 아담은 왜 중요한가?

- 유신진화론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 다윈이 아니라 아담임.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실제 인물이 아니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함. 그러나 신약성경은 아담을 단순한 상징으로 다루지 않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직접 연결함
- 바울의 논증은 단순한 문학적 비유가 아님.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와 생명이 주어진다는 구속사적 구조임. 따라서 역사적 아담이 약화되면 원죄 교리도 약화되고, 원죄가 약화되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도 변질될 수 있음
- 아담의 역사성은 창세기 해석의 세부 문제가 아니라 원죄와 대속, 곧 복음의 구조와 연결된 핵심 문제임. 아담은 성경에서 인류의 첫 사람이며 대표자로 제시됨. 아담의 범죄는 원죄 교리와 연결됨.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 안에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셨음

[3] 죽음은 왜 중요한 신학적 문제인가?

- 일반 성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죽음의 문제임. “동물들이 죽고 멸종하는 것이 왜 신학적으로 문제인가?”,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 현상으로만 설명하지 않음. 성경은 죽음을 죄와 연결함
- 진화론은 생명의 역사를 경쟁, 적응, 죽음, 멸종의 과정으로 설명함.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질서의 정상적 일부로 설명하지 않음. 죽음은 죄의 삶이며,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마지막 원수임
- 죽음의 문제는 과학적 세부 논쟁만이 아니라 죄와 구속,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신학적 문제임. 로마서 5장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함. 고린도 전서 15장은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멸하실 마지막 원수로 설명함. 죽음이 본래부터 창조 방식이었다면 죄와 죽음의 관계, 부활의 의미가 재해석될 수밖에 없음

[4] 창세기 1~3장은 역사인가, 상징인가?

- 유신진화론자들은 흔히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말함. 이 말 자체는 맞음. 정통 기독교 교회도 창세기를 현대 과학 교과서로 읽지 않음. 창세기는 DNA 구조나 지질 연대를 설명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님
- 그러나 창세기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 역사적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님. 출애굽 사건도 신학적 의미를 가진 역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신학적 의미를 가진 역사임. 마찬가지로 창세기 1~3장은 문학적 구조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실제 창조와 실제 타락을 증언하는 역사적 계시로 이해되어야 함
- 즉,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실제 창조와 실제 타락을 증언하는 역사적·신학적 계시로 보아야 함. 그런데 문헌성이 있다는 사실이 역사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음. 창세기 1~3장의 역사성은 아담, 타락, 원죄 교리와 연결. 개혁주의 교회는 창세기를 과학 교과서로 읽지 않지만, 역사적 계시로 읽음

[5] 기독교 전통은 창조 모델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필요함. 젊은지구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유신진화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OPC와 PCA의 보고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럼,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창조일의 길이와 지구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논의되어 왔음

- 젊은지구론은 창세기 본문의 평이한 읽기를 중시하고 역사적 아담과 타락을 강하게 방어한다는 장점이 있음. 오래된지구론이나 날-시대 이론은 현대 지질학·천문학의 오래된 연대를 고려하면서도 인간 진화는 거부함. 유비적 날 해석과 틀 이론은 창세기 1장의 날과 구조를 보다 문학적·신학적으로 해석함. 그러나 이런 견해들이 반드시 유신진화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정통 기독교 전통은 창조의 세부 방식에 일정한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복음의 구조를 흔드는 유신진화론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함. 정통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창조주간 해석에 일정한 다양성이 존재해 왔음. 그러나 역사적 아담, 역사적 타락, 원죄, 성경의 권위는 핵심 경계선으로 유지되어야 함

[핵심 정리]

-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창조는 복음 이전의 부차적 주제가 아니라 ‘창조-타락-구속-완성’으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 이야기의 출발점임. 따라서 창조의 세부 모델에 대해서는 일정한 논의의 폭이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아담, 역사적 타락, 원죄, 죽음의 신학적 의미,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 되심은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교리임. 유신진화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구조를 재해석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

■ E — Evaluate | 무엇이 왜곡되었는가

✓ 핵심 질문:

“유신진화론 논쟁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1] ‘과학 대 신앙’이라는 단순 구도가 문제임

- 이 논쟁을 “과학을 믿을 것인가, 성경을 믿을 것인가”라는 구도로 이해하면 본질을 놓치게 됨. 기독교는 과학 자체를 적대하지 않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질서 있는 세계이며, 자연 연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의미 있는

활동임

- 문제는 과학 자체가 아니라 과학을 해석하는 세계관임. 관찰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판단할 때, 사람은 언제나 어떤 세계관을 갖고 해석함.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고,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봄
- 유신진화론 논쟁은 과학과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과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충돌임. 과학과 기독교를 적대적으로만 보면 청년들이 불필요한 이분법에 빠지게 됨. 과학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은 구분되어야 함. 핵심은 과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세계관으로 과학을 해석할 것인가임

[2] 성경보다 과학 이론이 우위에 놓이는 문제

- 개혁주의 교회가 유신진화론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위의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 유신진화론은 겉으로는 성경과 과학의 조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현대 진화론을 먼저 전제한 뒤 창세기와 아담과 타락을 그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물론 성경 해석도 언제나 점검되어야 함.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에서 최종 권위는 성경임. 과학은 중요한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심판하는 위치에 설 수 없음.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해석도 타락한 인간 이성의 한계를 가짐
- 문제는 과학 자체가 아니라 성경과 과학 사이에서 무엇을 최종 권위로 둘 것인가임. 과학 이론이 먼저 전제되면 성경 본문의 의미가 그 이론에 맞게 제한될 수 있음. 창세기 1~3장의 역사성, 아담의 실존, 타락 사건이 상징화될 수 있으며,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개혁주의 원리가 약화될 수 있음

[3] 창조과학을 성경과 동일시하는 것도 오류임

- 보수 진영도 스스로를 점검해야 함.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한국창조과학회를 통해 진화론에 대응해 왔음. 창조과학 운동은 성경적 창조 신앙을 지키려는 열심과 공헌이 있었음. 그러나 창조과학의 특정 과학 모델을 성경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함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 그러나 어떤 지질학 모델, 연대 계산, 공룡 설명, 홍수

지질학의 세부 가설은 인간의 해석임. 인간의 과학 모델은 수정될 수 있음. 만약 교회가 특정 과학 모델을 성경과 동일시하면, 그 모델에 대한 논쟁이 생길 때 성도들이 성경까지 의심하게 될 수 있음

- 성경적 창조 신앙을 지키는 것과 창조과학의 모든 세부 모델을 절대화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함. 창조과학은 성경을 설명하고 변증하는 도구일 수 있지만 성경 자체는 아님. 교회는 창조과학의 공헌을 인정하되, 모든 세부 모델을 교리화해서는 안 됨

[4] 한국교회 내부의 성경관 차이를 보아야 함

- 한국교회는 유신진화론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예장합동, 고신, 합신,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보수 복음주의·개혁주의 교단들은 대체로 유신진화론을 성경관과 복음 구조를 훼손하는 위험한 사상으로 평가함. 반면 예장통합, 감리교, 기장 계열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공존함. 최근 성결교단의 유신진화론 이단 결의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다양한 지형 속에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교단 차원의 경계 설정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한국교회 안에서 이 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단순히 과학 이해가 다르기 때문만은 아님. 더 깊은 곳에는 성경관의 차이가 있음. 예장합동, 고신, 합신 계열은 대체로 성경 무오성, 창세기 역사성, 역사적 아담을 강조함. 반면 예장통합, 감리교, 기장 계열에서는 현장 목회자와 평신도는 전통적 창조 이해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신학교 교수와 신학자들은 유신진화론이나 비역사적 아담 이해에 더 개방적임
- 이 차이는 결국 창세기 1~3장을 어떤 성격의 본문으로 보느냐와 연결됨. 창세기를 역사적 계시로 보느냐, 신학적 상징과 문학적 서술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간론, 죄론, 구원론까지 달라질 수 있음

[5]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창조 교육 부재일 수 있음

-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유신진화론 자체가 아닐 수도 있음. 더 큰 문제는 창조 교육의 부재임. 많은 교회에서 창조 교육은 유치부나 초등부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과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은 훨씬 복잡함
- 청년들은 진화론, 유전학, 우주론, 지질학, 과학철학, 무신론, 유신진화론을 동시

에 접함. 그런데 교회가 “그냥 성경을 믿어라”는 말 외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교회 밖에서 답을 찾게 됨. 유신진화론이 설득력 있어서라기보다, 교회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도 있음

- 유신진화론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더 깊고 체계적인 창조·세계관 교육임. 창조 교육이 어린이 수준에서 멈추면 청소년과 청년의 질문에 답할 수 없음. 교회가 침묵하면 인터넷과 유튜브가 다음 세대의 교사가 됨. 유신진화론 논쟁은 한국교회의 세계관 교육 부재를 드러내는 경고 신호임

[6] 창조는 비과학적이라 재해석하면서 부활은 역사로 믿는 비일관성

- 유신진화론 진영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을 다루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임. 이들은 창조와 아담, 타락 사건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징적·문학적·비역사적 해석을 시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건임에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
- 물론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부활 신앙을 붙든다는 것은 여전히 복음의 핵심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중요한 지점임
- 그러나 문제는 해석 기준의 비일관성임. 창조 사건이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역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 같은 기준은 부활에도 적용될 수 있음. 반대로 부활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창조와 아담과 타락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성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됨
- 결국 문제는 “초자연적 사건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음

[7] 성결교단의 유신진화론 이단 결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최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는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교회 안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 또 이단 규정까지 간 것은 과도하며, ‘주의’, ‘경계’, ‘참여 금지’, ‘교류 금지’, ‘이단성 있음’ 등과 같은 가벼운 조치에 그쳤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음

-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결교단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상당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음. 유신진화론은 단순히 창조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역사적 아담, 원죄, 타락, 죽음의 기원, 복음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람에 대한 판단과 사상에 대한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유신진화론을 수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대속, 부활, 삼위일체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고백하는 이들이 존재함.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신진화론 자체가 가진 신학적 위험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한국교회는 교단마다 서로 다른 신학 전통과 창조 이해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교단 간 대화와 존중은 필요하지만, 역사적 아담, 원죄, 타락, 복음의 구조와 같은 핵심 교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학적 경계도 함께 유지해야 함

[핵심 정리]

- 유신진화론 논쟁에서 경계해야 할 왜곡은 여러 방향에서 나타남. 한편으로는 현대 과학 이론을 성경 해석의 상위 기준처럼 삼아 창조와 아담, 타락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과학의 특정 모델을 성경 자체와 동일시하여 개혁주의 안의 다양한 창조 모델 논의를 지나치게 좁히는 경향도 있음. 또한 창조와 타락은 과학적 이유로 역사성을 약화시키면서도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해석상의 비일관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결교단의 유신진화론 이단 결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는 사람에 대한 정죄와 사상에 대한 비판을 구분하면서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핵심 구조를 지키는 성숙한 분별력을 회복해야 함

■ W — Way Forward |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핵심 질문:

“유신진화론 논쟁 앞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교회는 창조를 복음의 일부로 가르쳐야 함

- 교회는 창조를 진화론 반박 수업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됨. 창조는 복음의 출발점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고, 인간이 타락했기에 구원이 필요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새 창조가 시작됨
- 창조 교육의 중심은 과학 논쟁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함. 아이들에게 “진화론은 틀렸다”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너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큰 이야기를 가르쳐야 함
- 창조 교육의 중심은 공룡이나 화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복음의 큰 이야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역사적 아담과 역사적 타락은 원죄와 구속 이해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사역)여야 함

[2] 교회는 젊은지구론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됨

- 한국 보수 교회 안에서는 젊은지구론의 영향력이 큼. 젊은지구론은 창세기 본문을 평이하게 읽고 역사적 아담과 타락을 강하게 방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점을 가짐. 그러나 OPC와 PCA식 접근을 참고할 때, 젊은지구론만을 개혁주의 신앙의 유일한 정답처럼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함
-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창조, 역사적 아담, 역사적 타락, 원죄, 그리스도의 구속임. 반면 지구의 정확한 나이, 창조일의 길이, 일부 지질학 모델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토론 가능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이 구분이 분명해야 다음 세대가 불필요한 이분법에 빠지지 않음
-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성숙한 개혁주의 창조 교육의 핵심. 젊은지구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유신진화론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됨. 오래된 지구(점진적 창조)론이 제3의 대안이 됨

[3] 한국교회는 창조론 지형도를 정직하게 가르쳐야 함

- 성도들에게 창조론은 하나뿐이라고 가르치면, 나중에 다른 견해를 접했을 때 혼란이 커짐. 오히려 교회는 젊은지구론, 오래된지구론, 날-시대 이론, 유비적 날 해석, 틀 이론, 지적설계, 유신진화론이 각각 무엇을 주장하는지 정직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음

-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견해가 동일하게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 교회는 각 견해를 소개하되, 어떤 견해가 정통 기독교 신앙 안에서 논의 가능한지, 어떤 견해가 복음의 구조를 흔드는지 분별하도록 도와야 함
- 성도들은 창조론 지형도(①한국창조과학회: 젊은지구론 중심의 창조 변증, ②창조론오픈포럼: 오래된지구론을 포함한 폭넓은 창조론 논의, ③지적설계연구회: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과 설계 논증 강조, ④과학과 신학의 대화: 유신진화론에 우호적인 흐름 형성)를 알아야 함. 그래야 유신진화론과 다른 창조 모델을 혼동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음

[4] 연령별 창조·세계관 교육이 필요함

-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음. 초등학생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초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과학과 신앙, 자연주의와 기독교 세계관, 창세기 해석, 유신진화론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루어야 함
- 청년부에서는 단순한 창조론 강의를 넘어 과학철학, 성경 해석학, 현대 문화 비판, 기독교 변증학까지 연결해야 함. 대학에 들어간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접하고 있음. 교회가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교회가 지적으로 빈약하다고 느낄 수 있음
- 다음 세대 창조 교육은 연령별로 달라져야 하며, 청소년기 이후에는 반드시 세계관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함

[5] 주일학교 교사와 부모를 함께 훈련해야 함

- 창조 교육은 주일학교 교사만의 책임이 아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곳은 가정임. “엄마, 학교에서는 사람이 진화했다고 하는데?”, “아빠, 아담과 하와는 진짜 사람이야?”, “공룡은 언제 살았어?” 같은 질문은 교회보다 집에서 먼저 나올 수 있음
- 따라서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뿐 아니라 부모를 함께 훈련해야 함. 부모가 기본적인 창조 신앙과 세계관을 이해해야 가정과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음
- 다음 세대 창조 교육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 과제. 주일학교

교사는 모든 과학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적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함. 부모는 자녀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 교회는 교사 교육, 부모 세미나, 청소년 세계관 교재를 제공해야 함

[핵심 정리]

- 한국교회의 과제는 유신진화론을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창조 신앙을 복음의 큰 이야기 안에서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데 있음. 교회는 창조 교육의 중심을 공룡·화석·지구 연대 논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역사적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에 두어야 하며, 주일학교·청소년부·청년부·부모 교육을 아우르는 연령별 창조·세계관 교육 체계를 세워야 함

■ Action Checklist

- ☐ 나는 유신진화론 논쟁이 단순한 과학 논쟁이 아니라 성경 권위, 역사적 아담, 원죄, 복음 구조와 연결된 신학적 문제임을 이해했다.
- ☐ 나는 젊은지구론, 오래된지구론, 날-시대 이론, 유비적 날 해석, 틀 이론, 지적 설계론, 유신진화론이 서로 다른 입장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 ☐ 나는 정통 기독교가 창조 모델의 다양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역사적 아담과 타락, 원죄, 그리스도의 구속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다.
- ☐ 나는 창조와 타락은 과학적 이유로 재해석하면서 부활은 역사로 받아들이는 비 일관성, 그리고 성결교단의 이단 결의가 제기한 신학적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다.
- ☐ 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를 위해 창조 신앙과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더 깊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Final Message

- ☐ 유신진화론 논쟁은 단순히 진화론 수용 여부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창세기 1~3장, 역사적 아담과 타락, 원죄와 구속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다.
- ☐ 정통 기독교가 유신진화론을 경계하는 이유는 과학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성경의 큰 이야기와 복음의 구조를 지키기 위함이다.
- ☐ 동시에 정통 기독교는 젊은지구론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강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기준은 특정 과학 모델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핵심 구조를 보존하는가에 있다.
- ☐ 성결교단의 유신진화론 이단 결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는 사람에 대한 정죄와 사상에 대한 비판을 구분하면서 성숙한 신학적 분별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 ☐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논쟁 자체보다는 교육이다. 교회와 가정은 다음 세대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역사적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더 깊고 체계적인 창조·세계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